연금술사가 전하는
나의 시간을
연금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

Kodex 연금 투자 가이드북

ETF 연금술사

年 金 術 師



세금부터
줄이는 기술
수록

같은 돈을 투자해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완전히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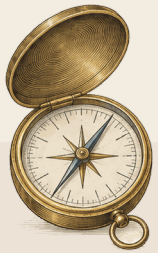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

삼성 Kodex ETF

당신도 연금술사가 될 수 있다

연금술이라는 말, 들어봤을 것이다.
중세 사람들은 비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려 했고,
금은 못 만들었지만 현대 화학의 토대를 만들었다.

우리가 할 연금술은 훨씬 현실적이다.
적은 돈을 꾸준히, 오래 굴려서 자산을 늘리는 것.
그리고 그 기본 재료는 화려한 종목이 아니라 **'계좌'**이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완전히 달라진다.

S&P500을 똑같이 사도 누군가는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주고,
누군가는 거의 다 가져간다. 차이는 단 하나, **'어디서 샀느냐(계좌)'**이다.
투자의 핵심은 **'얼마나 버느냐'만큼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수익에는 밤낮으로 매달리면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에는 무감각하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의 목표는 하나다.
세금 줄이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Kodex ETF를 담아
진짜 내 자산으로 굴리는 것이다.

Contents

1장. 연금술의 재료 — 계좌부터 고른다 04
1) 연금저축·IRP·ISA, 뭐가 다를까
2) 어차피 낼 세금, 계좌만 바꿔도 달라진다
3) 연금저축·IRP, 어디부터 채울까?
4) 아이 이름으로 연금 계좌? 시간이 가장 큰 무기

2장. 연금술의 매력 — 납입·운용·인출 3중 절세 10
1) 납입 : 최대 148만 5,000원 돌려받는 세액공제
2) 운용 : 세금 낼 돈까지 재투자되는 과세이연
3) 인출 : 15.4% 대신 3.3~5.5% 저율과세

3장. 연금술사의 공방 — 진짜 많이 받는 질문 14
1) 연금 모을 때 Q&A — 연금 적립기
2) 연금 받을 때 Q&A — 연금 인출기

4장. 연금술의 재료 도감 — ETF(상장지수펀드) 26
1) ETF가 뭐길래 연금 계좌에서 인기일까?
2) 복잡한 ETF 이름, 이것만 보면 된다
3) 이것만 지키자, ETF 투자 3원칙
4)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ETF 실전 매매 꿀팁

5장. 연금술사의 제조법 — ETF 투자 포트폴리오 36
1)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떨까?
2) ETF로 꾸준히 쌓는 방법 — 연금 적립기
3) ETF로 안정적으로 꺼내 쓰는 방법 — 연금 인출기

6장. 연금술사가 고른 재료 — Kodex ETF 22종 42
1) 한눈에 보는 Kodex ETF 22종

1

연금술의 재료
계좌부터 고른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연금술의 첫 재료는 종목이 아니라
투자할 자산을 담는 그릇(계좌)

01 연금저축·IRP·ISA, 뭐가 다를까?

연금술사의 한 줄
연금저축·IRP·ISA, 돈의 목적과 사용 시점에 맞는 그릇을 골라야 한다.

주요 재료는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인 **IRP 계좌**다. 여기에 절세 계좌 **ISA**까지 이해해보자. 연금 계좌는 국가가 "세금 줄여 줄게, 여기서 투자해"라고 만들어준 계좌다. 이 혜택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을 그대로 내는 셈이다.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목적	세액공제 및 노후 자금 마련	퇴직급여 수령, 세액공제 및 노후 자금 마련	중단기 목돈 마련, 절세
가입 자격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1]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자 15세 이상) -단,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세제 혜택	연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9.9% 분리과세[2]
납입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원[3]	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원[3]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한도 이월 가능)
계좌 개수	다수 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당 1인 1계좌 개설 가능	전 금융기관 합산 1인 1계좌 개설 가능
투자 제한	제한 없음	위험자산 비중 최대 70%까지	제한 없음
중도 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법정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납입원금 내 언제든지 출금 가능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

* 1)IRP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람도 가입 가능하며, 기존 가입 대상은 근로자에 국한되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가입대상이 확대됨 2)ISA 계좌 내 상품간, 투자기간 별 손익통산 후 순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3)납입한도 연 1,800만원 : 연금저축, IRP, DC, 기업형 IRP 추가 납입분 합산

또한 ISA는 연금 계좌는 아니지만, **3~5년** 만기로 목돈을 모으기 좋은 절세 계좌다. **ISA는 결혼·주택·자동차 같은 중단기 목돈 그릇,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노후 자금 그릇**이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된다.

그래서 어느 계좌에 먼저 납입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는 질문 하나만 해보자. **"이 돈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 3~5년 뒤면 ISA, 55세 이후 노후 대비라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답이다.

* 2027년에도 기존 ISA 제도는 유지되며, 국내 투자 전용 '생산적 금융 ISA'는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2 어차피 낼 세금, 계좌만 바꿔도 달라진다

연금술사의 한 줄
같은 5,000만원의 수익도 '무엇을 어디에 담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5,000만원을 Kodex 미국S&P500 ETF에 투자하여 1억원이 되었고,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어느 계좌에서 팔았는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

계좌 구분	상품(예시)	세금 계산	세금 총액
일반 계좌	미국 주식 직투(VOO*) *Vanguard S&P500 ETF	(5,000만원 - 250만원 기본공제) × 22%	약 1,045만원
	Kodex 미국S&P500 ETF	5,000만원 ×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가능)	약 770만원
연금저축, DC/IRP	Kodex 미국S&P500 ETF	매도 시점 세금 0원 55세 이후 수령 시 3.3~5.5%	매도 시점 과세되지 않음 - 연금 수령 시 약 275만원(5.5% 가정)
ISA	Kodex 미국S&P500 ETF	계좌 해지 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후 나머지 4,800만원(4,600만원)×9.9%	매도 시점 과세되지 않음 - 계좌 해지 시 약 475.2만원(약 455.4만원)

※ 과세대상금액 : MIN(매매차익 or 분배금, 과표증분)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ISA·연금저축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음
※ 상품 관련 내용은 6장(42p) 참고

같은 5,000만원의 과세대상금액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투자했느냐에 따라 매도 시점에 세금 부담이 약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특히 연금 계좌는 계좌 안에서 팔아도 세금 차감 없이 매도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리밸런싱을 아무리 해도 인출 전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뒤 큰 자산 격차를 만든다.



"55세 전에는 못 빼지 않나요?"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3.3~5.5%**의 저율과세로 연금 수령하면 된다.

계좌 구분	과세 시기	기본세율	손익통산
일반 계좌	수익 실현 시 (원천 징수)	배당소득세 15.4%	불가 (수익 난 것만 과세)
연금저축, DC/IRP	연금 수령 시 (만 55세 이후)	연금소득세 3.3~5.5%	가능 (계좌 내 전체 순익 대상)
ISA	계좌 해지/만기 시	비과세(한도 내) + 9.9% 분리과세	가능 (계좌 내 전체 수익 - 손실)

* 손익통산 :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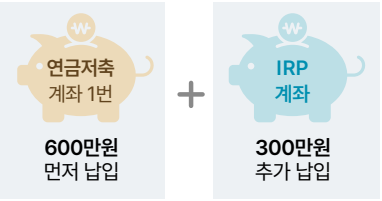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3 연금저축·IRP, 어디부터 채울까?

연금술사의 한 줄
유연한 그릇부터 채우고, 그 다음 절세 한도를 챙긴다.

① 연금저축(600만원) → IRP(300만원) 순서로 연 900만원 채우기

매년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로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여, 연간 900만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자.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IRP보다 자금 운용이 유연하다.** 단,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혜택을 다시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연금저축 계좌 2번 개설 – 언제든 자유롭게 뺄 수 있는 계좌

연 900만원 한도를 채우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더 만들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페널티 없이 출금할 수 있어** 과세이연을 누리면서 비상금처럼 쓸 수 있다.



연금저축	위험자산(주식형 ETF 등)에 100% 투자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 운용이 유연하다. 단,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은 중도 인출 시 다시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IRP)	펀드/ETF/예금/리츠 등 보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위험자산 투자 한도(주식) 70% 제한이 있다. 또한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DC/IRP 중도 인출가능 법정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 단,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 -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 등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4 아이 이름으로 연금 계좌? 시간이 가장 큰 무기

연금술사의 한 줄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자산은 돈과 시간이다. - 유기정기금 증여 활용

아직 어린데 무슨 연금이냐 싶지만, 자녀 명의 연금저축에 미국 대표지수 ETF(예: Kodex 미국S&P500 ETF, Kodex 미국나스닥100 ETF)를 적립식으로 넣어주자. **아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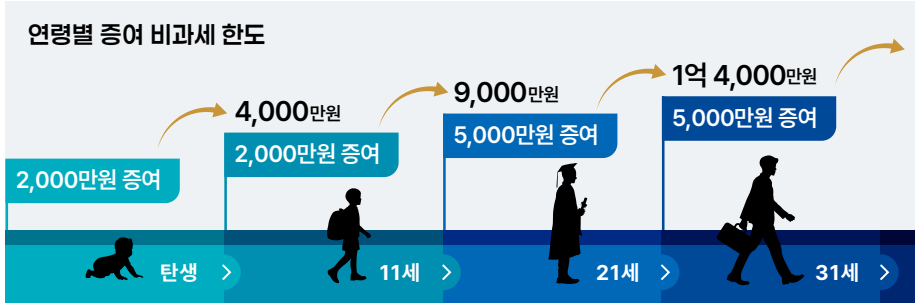
소득이 없는 아이는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이게 오히려 득이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페널티 없이 출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비나 등록금이 필요할 때 원금만 빼서 쓰고 과세이연은 계속 누릴 수 있고, 자녀가 취업하면 과거에 받지 않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이월공제 전환 특례 : 자녀가 성인이 되어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 가능
* 상품 관련 내용은 6장(42p) 참고

증여 비과세 한도 10년마다 갱신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10년 합산 2,000만원 (미성년 기간 최대 4,000만원 가능) -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 5,000만원
증여 인정 기간	- 가장 처음 증여를 한 날부터 10년 단위 갱신 (출생 직후부터 증여해야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음)
증여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실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자녀 증여 기본공제와 별도)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

예적금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용돈과 세뱃돈을 시장에 투자해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주자.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다. 자녀 계좌로 보낸 뒤 **국세청에 증여 신고까지 마쳐야**, 불어난 수익을 추징 없이 자녀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넣어주려면, 유기정기금 증여*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매월 증여할 금액의 총합보다 낮은 현재가치(연 3% 할인율 적용)로 평가받기 때문에, 일시금 증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 : 일시금 증여, 유기정기금 증여 등
- 일시금 증여: 한 번에 목돈을 증여하는 방식
- 유기정기금 증여 :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

미성년 자녀 증여 TIP
매월 19만원씩 적립식 증여 시



약 **280**만원 추가 증여 가능

(단위: 원)

증여 연수	유기정기금 증여		일시금 증여
	증여액 (19만원 × 12개월)	할인 평가액 (할인율 3%)	
1년	2,280,000	2,280,000	20,000,000
2년	2,280,000	2,213,592	
3년	2,280,000	2,149,119	
		...	
8년	2,280,000	1,853,849	
9년	2,280,000	1,799,853	
10년	2,280,000	1,747,430	
합계	22,800,000	20,032,328 >	20,000,000

성년 자녀 증여 TIP
매월 47만원씩 적립식 증여 시



약 **640**만원 추가 증여 가능

증여 연수	유기정기금 증여		일시금 증여
	증여액 (47만원 × 12개월)	할인 평가액 (할인율 3%)	
1년	5,640,000	5,640,000	50,000,000
2년	5,640,000	5,475,728	
3년	5,640,000	5,316,241	
		...	
8년	5,640,000	4,585,836	
9년	5,640,000	4,452,268	
10년	5,640,000	4,322,590	
합계	56,400,000	49,553,654 >	50,000,000

TIP **증여 시 과세 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따라서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 + 49만원까지, 성년 자녀는 최대 5,000만원 + 49만원까지 가능하다.**

예시
***미성년 자녀** 20만원씩 9년 9개월 증여 시 원금 2,34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할인 평가액 합계 : 20,486,661원)
***성년 자녀** 50만원씩 9년 7개월 증여 시 원금 5,75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할인 평가액 합계 : 50,216,654원)

※ 관련 세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금술의 매력

납입·운용·인출 3중 절세

연금 투자 전 과정(납입·운용·인출)에서 누리는 3단계 혜택



넣을 때는 세액공제 · 굴릴 때는 과세이연 · 꺼낼 때는 저율과세
전 과정에서 누리는 절세의 마법

01 납입 : 최대 148만 5,000원 돌려받는 세액공제

연금술사의 한 줄
연금 계좌에 넣는 순간부터 절세가 시작된다.

연금 계좌(연금저축+IRP)에 납입한 돈은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한도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납입액에 소득 수준별 비율**(16.5% 또는 13.2%)**을 곱해 돌려받는다.

소득구간	세액 공제율	연간 납입 한도	연간 세액공제 한도	최대 환급 세액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1,800만원	900만원	148만 5,000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118만 8,000원

*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되며, IRP와 합산 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 추가됨

이 세액공제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연금 계좌에 납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즉, 연 9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 때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고 시작하는 셈이다.

* 실제 세액공제 및 환급액은 개인별 소득, 산출세액, 다른 공제 및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2 운용 : 세금 낼 돈까지 재투자되는 과세이연

연금술사의 한 줄
과세이연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 그 돈까지 운용하게 해주는 구조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도하거나 투자 중 받는 분배금의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15.4%**가 즉시 원천징수 된다(단,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제외). 연금 계좌는 **수익이 나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으로 찾을 때까지 미뤄준다**. 이것이 **과세이연**이다.

ETF 유형	금융소득	일반 계좌 투자 시	연금 계좌 투자 시
국내주식형*	매매차익	비과세	과세이연
	분배금	배당소득세 MIN(분배금, 과표증분) × 15.4%	
그외 (해외주식, 파생, 채권, TR, 액티브형 등)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 15.4%	
	분배금	배당소득세 MIN(분배금, 과표증분) × 15.4%	

* 국내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2호)
※ 과세대상금액 : MIN(매매차익 or 분배금, 과표증분)
※ 해외주식 배당 재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odex 미국S&P500 ETF를 투자 후 매도해 100만원의 과세대상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계좌는 **15.4만원**을 떼고 **84.6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연금 계좌는 **100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총 자산 규모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상품 관련 내용은 6장(42p)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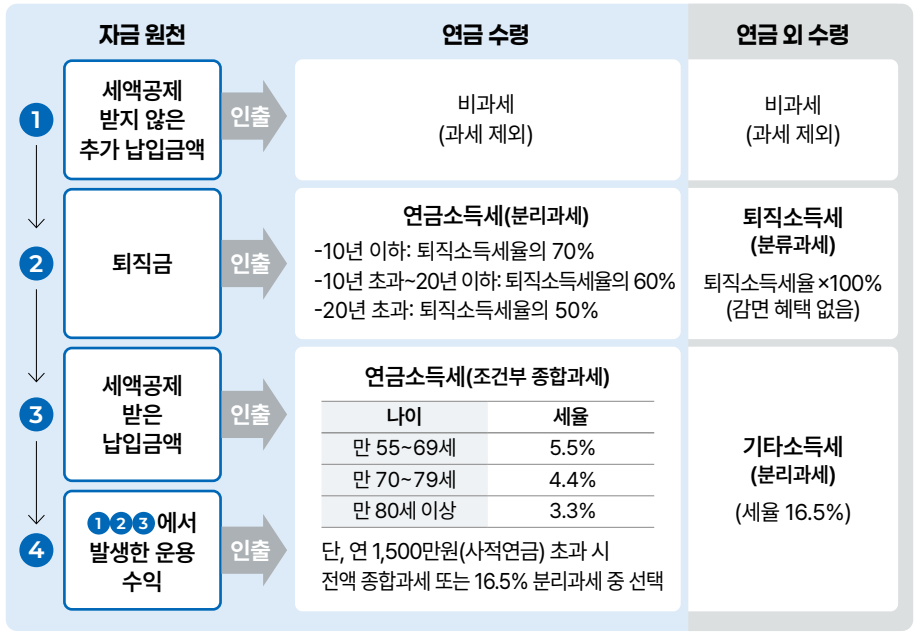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3 인출 : 15.4% 대신 3.3~5.5% 저율과세

연금술사의 한 줄
연금의 마지막 절세는 '잘 꺼내는 것'에서 완성된다.

연금으로 수령 시 배당소득세 15.4%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30~50%** 감면 받을 수 있다.

● **연금 인출 순서와 세제**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도 고마운데, 찾을 때 세율까지 **3분의 1 수준(15.4% vs 5.5%)**으로 줄여준다. **넣을 때(납입) 세액공제, 굴릴 때(운용) 과세이연, 찾을 때(인출) 저율과세**. 이 3중 절세가 연금 계좌의 핵심 매력이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연금술사의 공방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연금 적립기부터 인출기까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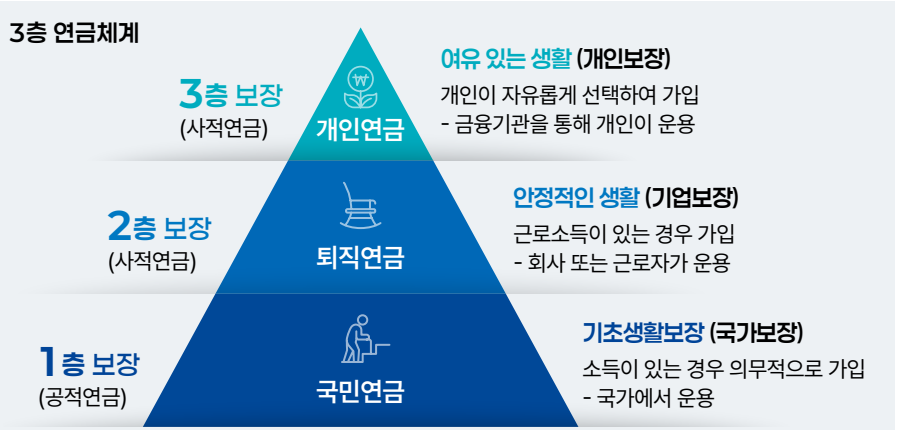


모을 때, 꺼낼 때, 미리 알아야 하는
연금술사의 명쾌한 해법

01 연금 모을 때 Q&A — 연금 적립기

Q1 왜 연금 투자가 중요할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적정생활비는 개인 1인당 **월 197만원**(2024년)인데,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64만원**이고 20~40만원대 수급자가 대다수다(2026년 4월).
따라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퇴직연금(DB/DC/IRP) 예시 연금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필요한 노후 자금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를 활용해 3층 탑을 쌓듯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자.



연금 통합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기!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 통합연금포털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향후 제공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제도 종류**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2 맞벌이 부부, 누구 계좌에 먼저 넣을까요?

소득이 적은(총급여 5,5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연금 계좌에서 연 900만원을 먼저 채우자.
세액공제율이 **16.5%와 13.2%**로 달라,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액이 **29만 7,000원** 차이 난다.

CASE **나(35세) 연봉 6,500만원 / 배우자(31세) 연봉 4,200만원, 매년 1,000만원 투자**

배우자 계좌 900만원		내 계좌 100만원		합계
(16.5%, 환급 **148만 5,000원**)	+	(13.2%, 환급 **13만 2,000원**)	=	**161만 7,000원**

만약 반대로 넣는다면 환급액은 135만 3,000원으로, 같은 1,000만원을 납입해도 부부가 어떻게 나누어 납입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26만 4,000원 차이가 난다.**

연금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 세액(예시)

소득구간	세액 공제율	연간 납입 한도	연간 세액공제 한도	최대 환급 세액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1,800만원	900만원	**148만 5,000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118만 8,000원**

* 실제 세액공제 및 환급액은 개인별 소득, 산출세액, 다른 공제 및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3 ISA 만기 자금, 연금 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나요?

만기 자금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된다.
즉,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추가되어, 그해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났다면 중도해지 후 이체도 가능하다.
단,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옮겨야 한다.

세금을 더 아끼는 꿀팁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

* 연금 계좌 중에서도 연금저축 계좌로 ISA 만기 자금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IRP 대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7p 참고)

연금 계좌	최대 900만원
+	
ISA 만기 이전 시	최대 300만원
↓	
총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4 연금 계좌에는 어떤 ETF를 담아야 유리한가요?

연금 계좌의 과세이연 효과는 해외주식형·채권형 같은 ETF에서 크게 나타난다.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국내주식형 ETF와는 달리, 해외주식형 및 채권형 ETF 등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 매도 혹은 분배금 수령 시 **15.4%** 원천징수 된다. 반면, 연금 계좌에서는 운용하는 동안 과세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로 저율과세 된다.

ETF 유형	금융소득	일반 계좌 투자 시	연금 계좌 투자 시
국내주식형*	매매차익 / 분배금	비과세 / 배당소득세 MIN(분배금,과표증분)×15.4%	과세이연
그외 (해외주식,파생,채권, TR,액티브형 등)	매매차익 / 분배금	배당소득세 MIN(매매차익,과표증분)×15.4% / 배당소득세 MIN(분배금,과표증분)×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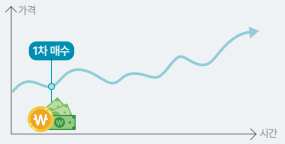
* 국내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2호)
※ 해외주식 배당 재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한 번에 살까요? 나눠 살까요?

연금 투자의 완벽한 시작점은 없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방식으로 빨리 시작해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가정 하에 **목돈이 있다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일시매수(거치식)가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분할매수(적립식)는 정해진 기간과 금액으로 나누어 사기 때문에 평균 매수 가격을 분산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느 방식이 항상 더 높은 수익을 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투자기간, 손실 감내도와 목돈의 성격에 따라 선택이 필요하다.

일시매수

한 번에 크게 투자!



- 장기 재투자 효과 극대화 기대
- 거래비용 최소화 기대

- 시장 하락 시 더 큰 손실 가능
- 높은 심리적 부담

상승장이 빠르게 전개될 때 유리할 수 있는 방식

분할매수

여러 번 나눠서 꾸준히 투자!



- 매수 타이밍 스트레스 없음
- 평균 매입 단가 안정화
- 심리적 안정감

- 강세장에서 일괄매수 대비 낮은 수익률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진입 부담을 줄이는 방식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6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ETF가 있던데요?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변동성이 큰 상품은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는 거래할 수 없게 막혀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지수 일간 수익률의 2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 기초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는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살 수 없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선물형 ETF**도 매수할 수 없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주식형 등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지는 증권사 앱에서 **'퇴직연금 투자 가능'** 표시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투자 제한 사항	예시
연금 저축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불가	Kodex 레버리지 ETF, Kodex 인버스 ETF, Kodex 반도체 레버리지 ETF,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 등
퇴직 연금	① 파생형(위험평가액 40% 초과) 상품 투자 불가. 단, 합성 ETF는 투자 가능	
	⇒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불가	Kodex 레버리지 ETF, Kodex 인버스 ETF, Kodex 반도체레버리지 ETF,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 등
	⇒ 선물(Futures)에 투자하는 ETF 투자 불가	Kodex 골드선물(H) ETF, Kodex 은선물(H) ETF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 ETF 등
	⇒ 합성 ETF는 투자 가능	Kodex 차이나심천ChiNext(합성) ETF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 ETF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ETF
	②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국내주식] Kodex 200 ETF,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해외주식] Kodex 미국S&P500 ETF,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대체투자] Kodex 금액티브 ETF
	③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	[자산배분] Kodex TRF3070 ETF, Kodex TRF5050 ETF [국내채권] Kodex 국고채10년액티브 ETF,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 [해외채권]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 Kodex 미국종합채권ESG액티브(H) ETF
	④ 적격 TDF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	Kodex TDF2030액티브 적격 ETF Kodex TDF2040액티브 적격 ETF Kodex TDF2050액티브 적격 ETF Kodex TDF2060액티브 적격 ETF Kodex 코리아TDF2065액티브 적격 ETF

※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7 Kodex ETF, 삼성증권에서만 살 수 있나요?

Kodex ETF는 삼성증권 전용이 아니다.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다.
Kodex는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이고,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따라서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의 일반계좌 및 연금저축·IRP·ISA 계좌 등에서 Kodex ETF를 검색하여 투자가 가능하다.



* 주요 증권사 기준 예시이며, 증권사 외에도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서 ETF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은행·보험사를 통해 Kodex ETF 거래가 가능하다.

* Q6(18p) 예시 상품 상세 | **<Kodex 레버리지 ETF>** 합성총보수 : 연 0.6527% (운용 0.59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2%, 기타 0.0127%),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6456% 발생 | 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Kodex 인버스 ETF>** 합성총보수 : 연 0.6595% (운용 0.59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2%, 기타 0.0195%),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1546% 발생 | 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Kodex 반도체레버리지 ETF>** 합성총보수 : 연 0.5238% (운용 0.464%, AP 0.001%, 신탁 0.015%, 사무 0.01%, 기타 0.0338%),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506% 발생 | 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 합성총보수 : 연 0.6723% (운용 0.59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2%, 기타 0.0323%),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3397% 발생 | 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Kodex 골드선물(H) ETF>** 합성총보수 : 연 0.7321% (운용 0.599%, AP 0.001%, 신탁 0.04%, 사무 0.04%, 기타 0.0521%),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573% 발생 | 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 **<Kodex 은선물(H) ETF>** 합성총보수 : 연 0.7338% (운용 0.599%, AP 0.001%, 신탁 0.04%, 사무 0.04%, 기타 0.0538%),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1017% 발생 | 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 ETF>** 합성총보수 : 연 0.1452% (운용 0.04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2%, 기타 0.0552%),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662% 발생 | 위험등급 : 4등급 (보통 위험) | **<Kodex 차이나심천ChiNext(합성) ETF>** 합성총보수 : 연 0.5414% (운용 0.42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2%, 기타 0.0714%),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04% 발생 | 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H) ETF>** 합성총보수 : 연 0.3237% (운용 0.229%, AP 0.001%, 신탁 0.01%, 사무 0.01%, 기타 0.0737%),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13% 발생 | 위험등급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ETF>** 합성총보수 : 연 0.0308% (운용 0.011%, AP 0.001%, 신탁 0.004%, 사무 0.004%, 기타 0.0108%),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69% 발생 | 위험등급 : 4등급 (보통 위험) | **<Kodex TRF3070 ETF>** 합성총보수 : 연 0.3866% (운용 0.219%, AP 0.001%, 신탁 0.01%, 사무 0.01%, 기타 0.0536%),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126% 발생 | 위험등급 : 5등급 (낮은 위험) | **<Kodex TRF5050 ETF>** 합성총보수 : 연 0.3335% (운용 0.149%, AP 0.001%, 신탁 0.01%, 사무 0.01%, 기타 0.0555%),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36% 발생 | 위험등급 : 4등급 (보통 위험) | **<Kodex 국고채10년액티브 ETF>** 합성총보수 : 연 0.0286% (운용 0.008%, AP 0.001%, 신탁 0.003%, 사무 0.003%, 기타 0.0136%),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83% 발생 | 위험등급 : 5등급 (낮은 위험) | **<Kodex 미국종합채권ESG액티브(H) ETF>** 합성총보수 : 연 0.2339% (운용 0.13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2%, 기타 0.0539%),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 발생 | 위험등급 : 5등급 (낮은 위험) | **<Kodex TDF2030액티브 적격 ETF>** 합성총보수 : 연 0.3409% (운용 0.179%, AP 0.001%, 신탁 0.01%, 사무 0.01%, 기타 0.0619% 및 피투자펀드 보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386% 발생 | 위험등급 : 4등급 (보통 위험) | **<Kodex TDF2040액티브 적격 ETF>** 합성총보수 : 연 0.4028% (운용 0.229%, AP 0.001%, 신탁 0.01%, 사무 0.01%, 기타 0.0648% 및 피투자펀드 보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72% 발생 | 위험등급 : 4등급 (보통 위험) | **<Kodex TDF2050액티브 적격 ETF>** 합성총보수 : 연 0.4839% (운용 0.279%, AP 0.001%, 신탁 0.01%, 사무 0.01%, 기타 0.0619% 및 피투자펀드 보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553% 발생 | 위험등급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Kodex TDF2060액티브 적격 ETF>** 합성총보수 : 연 0.4902% (운용 0.279%, AP 0.001%, 신탁 0.01%, 사무 0.01%, 기타 0.0682% 및 피투자펀드 보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1966% 발생 | 위험등급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등 상품 관련 내용은 6장(42p) 참고

※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2 연금 받을 때 Q&A — 연금 인출기

Q1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 뭐가 유리한가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
특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30% → 40% → 50%**로 커진다.

①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



수령 연차	적용 세율
일시금 수령	100%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율의 70%(30% 감면)
10년 초과 ~ 20년 이하	퇴직소득세율의 60%(40% 감면)
20년 초과 수령*	퇴직소득세율의 50%(50% 감면)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 분부터 적용(20년 초과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50% 감면)

② 퇴직금 기반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부담 없이 '분리과세' 가능

퇴직금 수령 시뮬레이션 예시 : 퇴직금 3억원, 퇴직소득세 3,000만원(퇴직소득세율 10% 가정)

구분	일시금 수령 시	10년 동안 연금 수령 시	20년 동안 연금 수령 시	30년 동안 연금 수령 시
퇴직금 총액	3억원	3억원 (연간 3,000만원)	3억원 (연간 1,500만원)	3억원 (연간 1,000만원)
세금 총액	퇴직소득세 3,000만원 (즉시 납부)	연금소득세 총 2,100만원 (10년에 걸쳐 납부)	연금소득세 총 1,950만원 (20년에 걸쳐 납부)	연금소득세 총 1,800만원 (30년에 걸쳐 납부)
세금 산식	3억원×10% = 3,000만원	210만원×10년 =2,100만원 (3,000만원×7% =210만원)	1,050만원+900만원 (~10년차 105만원×10년 +11~20년차 90만원×10년)	700만원+600만원 +500만원 (1~10년차 70만원×10년 +11~20년차 60만원×10년 +21~30년차 50만원×10년)
세후 수령액	2억 7,000만원	2억 7,900만원	2억 8,050만원	2억 8,200만원
절세 금액		900만원 절세	1,050만원 절세	1,200만원 절세

일시금 수령 대비 30년 연금 분할 수령 시 최대 1,2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 분부터 퇴직소득세의 50% 감면율 확대 적용)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금 대비 퇴직소득세를 10%로 가정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및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2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과 한도가 있나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기본 조건(나이,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연간 절세 혜택이 적용되는 '연금 수령 한도'가 존재한다.

① 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있나요? (퇴직금 입금 여부에 따른 차이)



퇴직금 입금 계좌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퇴직금 미입금 계좌 — 만 55세 + 가입 기간 5년 이후 연금 수령 가능

② 연금 수령 한도가 뭐예요? (절세가 적용되는 연간 최대 한도)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 계좌의 평가액}}{(\,11-\text{연금 수령 연차}\,)} \times 120\%$$

- 11년차 이상 : 연금 수령 한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짐(원하는 금액 자유롭게 인출 가능)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 : 수령 연차를 6년 차부터 적용(한도가 5년 만에 해제됨)

CASE 연금 수령 한도 예시 : 연금 계좌 평가액 5억원

나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 **1년차 한도** = $\frac{5억원}{(11-1)} \times 1.2$ = **6,000만원**
- **2년차 한도** = $\frac{4억\ 5{,}300만원^{*}}{(11-2)} \times 1.2$ = **6,040만원**

* 1년 차에 5,500만원 수령 후, 800만원 운용수익 발생 가정

나의 배우자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 **1년 차 한도** = $\frac{5억원}{(11-6^{*})} \times 1.2$ = **1억 2,000만원**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자는 수령 연차가 6년차부터 시작됨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연금소득세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도 저율과세 적용됨

*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필요시
-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한 경우
- 천재지변 등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3 퇴직금을 연금 수령 한도보다 더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은 가능하다. '연금 수령 한도'는 세금 혜택을 주는 절세 한도일 뿐, 인출 자체를 막는 제한은 아니다.
단,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연금 외 수령)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CASE **퇴직금 5억원 / 퇴직소득세 5,000만원(퇴직소득세율 10% 가정)**

상황 1. **퇴직하자마자 일시금으로 전부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로 5,000만원 즉시 납부 (세금 = 5억원 × 10%)

상황 2. **매년 연금 수령 한도(6,000만원)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1년차 연금소득세 420만원 납부
- 1년차 수령 한도 = 5억 ÷ (11-1) × 1.2 = 6,000만원
- 세금 = 6,000만원 × 7%(퇴직소득세율의 70%)

상황 3. **연간 수령 한도(6,000만원)를 초과해 1억원을 인출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 4,000만원은 퇴직소득세 할인을 받을 수 없음
1년차 세금 **820만원 납부(420만원 + 400만원)**
- 한도 이내 : 6,000만원 × 7%(퇴직소득세율의 70%) = 420만원
- 한도 초과 : 4,000만원 × 10%(퇴직소득세율 100%, 감면 없음) = 400만원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금 대비 퇴직소득세를 10%로 가정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및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4 퇴직금, 안 쓸 돈인데 매년 1만원씩 꺼내라고요?

소액이라도 매년 인출해 '연금 실제 수령 연차'를 쌓아두면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받는다.
수령 연차가 쌓일수록 감면율이 **30% → 40% → 50%**로 커진다. 인출 금액이 적어도 연차는 똑같이 쌓이고, **11년차부터는 수령 한도도 사라진다.**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감면율	적용 세율	인출 한도 제한
10년 이하	30% 감면	퇴직소득세율의 70%	있음 (연금 수령 한도 적용)
10년 초과 20년 이하 (11년차~20년차)	40% 감면	퇴직소득세율의 60%	없음 (자유롭게 인출 가능)
20년 초과 (21년차~)	50% 감면	퇴직소득세율의 50%	없음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5 퇴직금 말고도 연금저축, IRP 계좌에 있는 돈, 뭐부터 빠져나가나요?



연금 인출은 법으로 정해진 '자금 원천별 순서'가 존재한다.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비과세) 자금부터 우선적으로 인출된다.

● **연금 인출 순서와 세제**

연금 인출 순서

	자금 원천		연금 수령	연금 외 수령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액	인출	비과세 (과세 제외)	비과세 (과세 제외)
2	퇴직금	인출	**연금소득세(분리과세)**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율의 70% -10년 초과~20년 이하: 퇴직소득세율의 60% -20년 초과: 퇴직소득세율의 50%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퇴직소득세율×100% (감면 혜택 없음)
3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인출	**연금소득세(조건부 종합과세)** 나이 / 세율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16.5%)
4	①②③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인출	단, 연 1,500만원(사적연금)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아래의 순서로 인출된다.

1. 가장 먼저, ①**세액공제 안 받은 추가 납입금액**부터 세금 없이(비과세) 인출된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를 초과하여 계좌에 넣었던 원금이 해당되며, 원할 때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2. 그 다음, ②**퇴직금**이 인출된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 받아 절세할 수 있다. 단,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은 감면 혜택 없이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된다.
3. 마지막으로, ③**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④**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단,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으로 한 번에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6 연 1,500만원, 왜 꼭 기억해야 하나요?

연금 수령 시 절세의 핵심은 연간 1,500만원이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3.3~5.5%)만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총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 사적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개인연금, 퇴직연금(본인이 직접 가입·납입한 연금저축 및 IRP 계좌) 등을 의미
1,500만원 기준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퇴직금 원금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액은 제외)

Q7 사적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원 이하로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6.6~49.5%)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거의 없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다면, 16.5% 분리과세보다 낮은 세율(6.6%)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CASE **예시** 사적연금 연 수령액이 1,600만원인 친구가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민하고 있다.
- 16.5% 분리과세 선택 시 264만원 납부(1,600만원 × 16.5%)
- 종합과세 선택 시 : 다른 소득에 따라 63~366만원 납부(아래 표 참고)

결론 만약 다른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은 157만원이다. 이 경우 분리과세(264만원)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107만원(264만원-157만원) 더 이득이다.**

(단위: 만원)

총 연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 금액	6.6%	16.5%	26.4%	38.5%	16.5%
			1,400	5,000	8,800	15,000	
1,600	650	950	63	157	251	366	264

* 연금소득공제 650만원 = 630만원+(200만원×10%)

연금소득 공제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전액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 산식 (총 연금액 1,600만원 예시)

1,400만원 이하	(1,600만원-650만원)×6.6% = 63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00만원-650만원)×16.5% = 157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600만원-650만원)×26.4% = 251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600만원-650만원)×38.5% = 366만원

* 종합과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소득 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종합소득세액은 개인별 소득 및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8 연금 계좌, 왜 2개 이상으로 나누라고 하나요?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계좌별로 나누면 연금 수령 시 인출 금액을 조절하기 수월하다.
먼저 퇴직금과 운용수익이 있는 계좌(1번)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있는 계좌(2번)로 분리하면 좋다. 2번 계좌는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에 맞추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1번 계좌의 퇴직금을 인출하면 된다. **단, 퇴직금 원금 소진 후 남은 운용수익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도 연간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므로 수령액 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연금 수령을 개시한 계좌는 추가로 납입할 수 없으므로, 연금 수령 이후에도 계속 납입하여 투자하려면 계좌를 미리 여러 개로 나눠둘 필요가 있다.

연금 계좌 1번 — **퇴직금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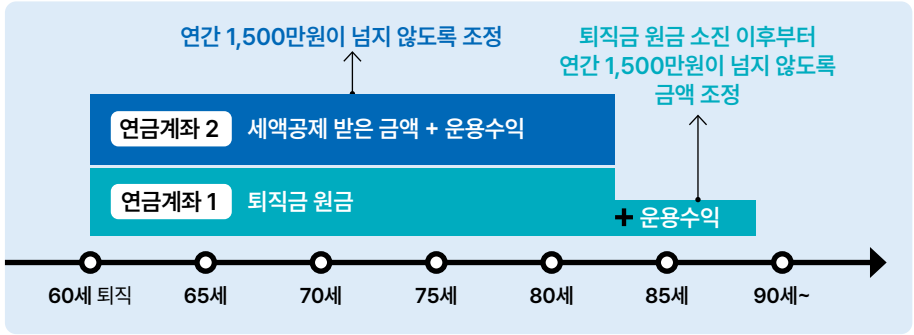
퇴직금 원금 인출 시에는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 제한 없이 퇴직소득세 감면(30~50%)을 적용 받으며 인출 가능.
단, 퇴직금 원금 소진 후 인출되는 운용수익은 1,500만원 한도에 합산되므로 수령액 조정 필요

연금 계좌 2번 — **세액공제 + 운용수익 중심**

연간 인출 금액을 1,500만원 이내로 맞춰 저율 과세, 즉 연금소득세(3.3~5.5%) 혜택 유지



● **종합과세를 고려한 연금 수령**



* 종합과세 대상 금액: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연금술의 재료 도감

ETF(상장지수펀드)

여러 자산을 쉽고 투명하게 담는 도구,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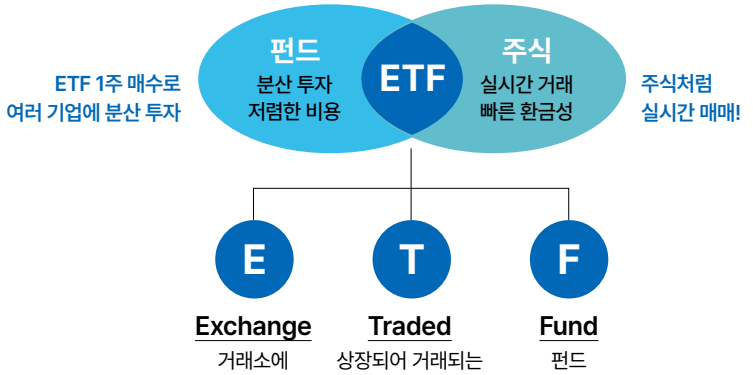


연금술을 더 강화하는
ETF라는 재료

01 ETF가 뭐길래 연금 계좌에서 인기일까?

연금술사의 한 줄
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 투자가 불가능한 반면, ETF는 다양한 종목을 담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연금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제 무엇을 담을지 정할 차례다. **연금 자산을 키우는 핵심 재료는 바로 ETF(상장지수펀드)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상장된 펀드**다. 펀드의 분산 효과와 주식의 편리함을 한 번에 갖춘 셈이다. **낮은 비용, 자동 분산, 소액투자, 매일 공개되는 구성 종목 등 ETF의 장점은 연금 계좌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



ETF가 연금 계좌에서 빛나는 4가지 이유

1. **과세이연 효과가 크다.** 일반 계좌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지만, 연금 계좌에는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루며 투자할 수 있다.
2. **사고 팔아도 세금 부담 없이 투자 비중 조절이 자유롭다.** 연금 계좌에서는 ETF를 교체하거나 매매하더라도 과세가 이연되므로, 나이나 시장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용이하다.
3.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채권혼합, 적격 TDF ETF 등을 활용하면 퇴직연금 내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4. **인출기에서는 월배당 ETF로 현금 흐름을 기대 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ETF를 매도하지 않고도 매월 분배금을 추구할 수 있다.

02 복잡한 ETF 이름, 이것만 보면 된다

연금술사의 한 줄
ETF 이름은 '누가 만들었는지 + 무엇에 투자하는지'만 읽으면 된다.

ETF 이름이 길어 보여도 읽는 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앞부분은 '누가 만든 상품인지'를 나타내는 운용사 브랜드, 뒷부분은 '무엇에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나 자산**이다.

구분	의미	예시
운용사 브랜드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의 이름	커피 체인점(브랜드)
담긴 지수/자산	ETF가 실제로 투자하는 대상이나 지수	커피 메뉴

커피로 비유하면 **Kodex는 브랜드, 미국S&P500은 메뉴**에 가깝다. 같은 메뉴라도 브랜드마다 제조법이 조금씩 다르듯, ETF도 운용방식, 비용, 세부 구조 등에 차이가 있다.

① [운용사 브랜드] 선택하기 = 커피 브랜드 고르기

ETF 브랜드	운용사	예시(커피 체인점)
Kodex	삼성자산운용	A 커피 브랜드

② [담긴 지수/자산] 선택하기 = 커피 메뉴 고르기

담긴 지수/자산	실제 투자 대상	예시(커피 메뉴)
미국S&P500	미국을 대표하는 상위 500개 우량 기업	아메리카노
미국나스닥100	미국 기술주 중심 상위 100개 기업	카페라떼
코스피200	한국을 대표하는 상위 200개 기업	콜드브루

처음 보는 ETF라면 이름 전체를 외우려 하지 말고 **'브랜드는 어디인가? 무엇에 투자하는가?' 두 가지만 확인**해도 상품의 큰 틀을 빠르게 읽을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명 — Kodex 미국S&P500 ETF — 미국 대표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지수에 투자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명 —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 미국 기술주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지수에 투자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명 — Kodex 200 ETF — 한국 대표 상위 2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지수에 투자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인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03 이것만 지키자, ETF 투자 3원칙



제1원칙 대표지수부터 시작하자

연금술사의 한 줄
종목을 고르기 전에, 시장 전체를 담는 것이 먼저다.

가장 먼저 알아 둬야 할 '기본 재료'는 단연 **미국S&P500 지수**다. S&P500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고,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쏠리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다. Kodex 대표 상품은 **Kodex 미국S&P500 ETF(종목코드 379800)**다.

"내 재산의 90%를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하라" — 워렌 버핏

- 최근 20년(2006.09~2026.08) 누적 수익률 **486%**
- 10년간(~2026.08) 연평균 수익률(배당 제외) **15.3%**
-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수많은 위기를 거치면서도 지속적인 우상향 기록

※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2026년 8월말 기준 ※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품 관련 내용은 6장(42p) 참고

S&P500 지수는 미국의 혁신과 성장으로 여러 경제위기를 극복해 왔다. 워렌 버핏이 아내에게 남긴 유언장에 S&P500을 언급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장기 우상향의 역사와 안정성에 있다.
종목을 계속 바꿔줄 필요도 없다. **지수가 알아서 '잘하는 기업으로 1년에 4번 자동 교체'** 해주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표기업이 편입되고 개별 종목을 직접 선별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S&P500	1년	3년	5년	10년
연평균 수익률	20.4%	21.0%	12.8%	15.3%



* S&P500 지수 차트 : 2017.01.01~2026.08.31 기준/ 연평균 수익률: 2026.08.31 기준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는 **코스피 200 지수**가 있다.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큰 200개 우량 기업으로 구성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주에 분산 투자한다. Kodex 대표 상품은 **Kodex 200 ETF(종목코드 069500)**다.

- 최근 20년(2006.09~2026.08) 누적 수익률 **403%**
- 10년간(~2026.08) 연평균 수익률(배당 제외) **15.4%**

코스피 200	1년	3년	5년	10년
연평균 수익률	149.2%	47.4%	21.1%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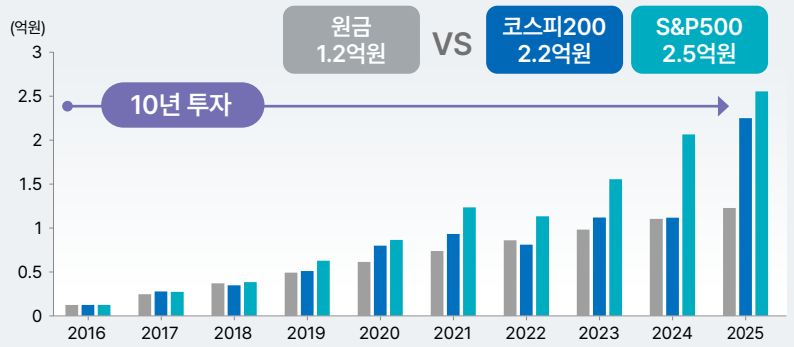
* 코스피 200 지수, 2026.08.31 기준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품 관련 내용은 6장(42p) 참고

흥미로운 점은 최근 성과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업황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으로 뚜렷한 강세 국면에 들어서면서, '미국만 오른다'는 통념과 달리 코스피 200도 짧은 기간에 강한 반등력을 보여줬다. 10년 구간으로 넓혀보면 **코스피 2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5% 수준**으로 S&P500 지수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결과도 두드러진다. 지난 10년간 매년 12월말 1,200만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두 대표지수 모두 원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대표지수 적립 투자 = 성공 투자의 공식

- 10년 투자 : 원금 1.2억원 → 코스피200 2.2억원, S&P500 2.5억원
  (지난 10년간 매년 12월말 1,200만원 적립식으로 투자 가정)



* 코스피 200 지수, S&P500 지수 기준, 기간 : 2016.01~2025.12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시뮬레이션은 과거 대표지수(코스피200, S&P500) 지수의 연도별 수익률을 단순 적용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투자 성과, 세금, 매매 비용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특정 종목이나 시장의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미국과 국내 대표지수를 투자의 '기본 재료'로 삼아 꾸준히 담아가는 것**이 장기 투자의 첫걸음이다.

제2원칙 시간과 축적의 힘을 믿자

연금술사의 한 줄
언제 사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성과를 결정한다.

"언제 사야 유리할까?" 2016년 6월부터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S&P500에 투자한 세 가지 습관을 비교**해보았다.

- 투자 조건 :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투자(2016.06~2026.06)
- 세 명의 투자자
  1) 😇 **저점이(매월 최저점 매수)** :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매월 최저점을 귀신같이 맞춰 매수
  2) 🙂 **적립이(매월 초 기계적 매수)** : 타이밍 고민 없이 매월 첫 영업일에 마음 편히 매수
  3) 😱 **고점이(매월 최고점 매수)** : 운 나쁘게 매월 가장 높은 가격(최고점)에서만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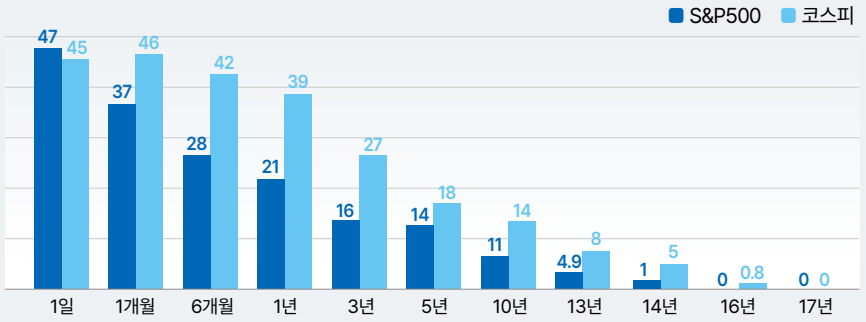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기간 : 2016.06~2026.06, S&P500 ※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는 주요 지수 간 누적 수익률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순 참고용 예시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상기 수치는 광고시점 및 향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최저점에 산 **저점이(2.63억원)**와 매월 첫 영업일에 산 **적립이(2.56억원)**의 차이는 약 **700만원**에 불과하다. 매월 최고점에만 산 **고점이(2.49억원)**조차 투자하지 않은 원금(1.21억원)의 **2배**가 넘었다. 결국 **'언제 사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느냐'가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열쇠라는 뜻이다.**

이번엔 질문을 바꿔보자. 실제로 얼마나 오래 투자해야 손실 확률이 줄어들까? 투자 기간에 따라 손실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데이터로 확인해보자.

- 어떤 시점에서든 하루를 투자했다면 손해 볼 확률이 50% 수준
- 미국 S&P500지수 16년 투자 시 손실 확률 감소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 확률 감소)

S&P500·코스피 지수 투자 기간에 따른 손실 확률(%)



※ 자료: 삼성자산운용, Bloomberg, 기초지수: S&P500 PR , 코스피 PR, 기간: 1980.01~2026.04
※ 본 자료는 특정 기간 동안 S&P500 지수 및 코스피 지수의 단순 수치만을 비교한 자료로, 실제 투자 성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선택 시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명확하다. 아무 날이나 골라서 하루만 투자했다면, 손해를 볼 확률이 50% 수준에 달한다.
그런데 이 확률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꾸준히 줄어든다.
즉,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다.



제3원칙 끊임없이 공부하자

연금술사의 한 줄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내 자산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는 크게 **정책, 금리(미국 경제), 기업 실적 등**이다.
여기에 지정학 리스크까지 얽혀 관세나 금리 발표 하나에 주가가 하루에도 크게 출렁인다. 이 변수를 매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개별 주식보다는 다양한 주식으로의 분산 투자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대표지수 ETF가 손쉬운 투자 수단**이다.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 자료: 삼성자산운용, 구글 이미지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다. **출퇴근길 자투리 시간에 경제 뉴스나 전문 콘텐츠를 챙겨보는 습관**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갈 수 있다. 경제 유튜브 채널 '강남역 8번 출구'도 활용해보자.



04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ETF 실전 매매 꿀팁

1. 날짜를 달리하는 분할매수·분할매도

- 하루 안(예: 아침 9시, 10시, 11시)에 나누어 사는 것은 진정한 분할 매수가 아니다.
- 주 단위나 월 단위처럼 매수 시점 자체(날짜)를 넓게 분산해야 변동성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

2. 거래량과 호가창이 풍부한 ETF 선택

- 거래량이 적으면 원하는 가격에 제때 사고팔기 어렵다.
- 매수·매도 호가창에 수량이 촘촘히 쌓여 있어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장 시작 직후(09:00~09:10) 매매 피하기

- 장 개시 직후 10분 동안은 주문이 몰려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 또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공급이 안정화되기 전이므로, 시장이 정돈되는 9시 10분 이후에 거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시장가 아닌 지정가로 매매

- 급한 마음에 '시장가'로 주문하면 원치 않는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위험이 있다.
- 반드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지정하여 주문하는 지정가 매매를 습관화해야 한다.

5. 장 마감 동시호가(15:20~15:30) 이전에 매매 마무리

-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실시간 체결이 불가능하다.
- 원하는 가격에 거래를 마치려면 15시 20분 이전에 실시간 매매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 상기 매매 팁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의 자산 상황 및 시장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TF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 30개 질문으로 완성하는 ETF 실전 학습지

5

연금술사의 제조법

ETF 투자 포트폴리오

재료를 골랐다면,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할 차례



연금 적립기와 인출기에 맞춰 활용하는
연금술사의 특별한 제조 비법

01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떨까?

Economic News

4분기 매크로

- 한국 2026년 성장률 2.6%→3.3% 상향 : 수출, 민간소비가 상향 주도
- 반도체 이익의 파급 : 환율(원화강세), 주식(자사주 배당), 설비 투자 확대 등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쟁·미국 중간선거·AI 회사채 물량 부담 등으로 높은 수준 지속될 전망
- 한국은행, 연내 추가 1회 인상 후 마무리 예상(최종금리 3.25%)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내년까지 지속
- 국내·미국·AI 테마 중심으로 긍정적 시각



대표지수

- ☑ 국내·미국 주식 모두 긍정적 흐름 전망
- ☑ 미국은 빅테크 실적 호조, 한국은 반도체 실적이 안정되면서 밸류 재평가 국면

AI 테마

- ☑ AI 투자, 데이터센터 → 반도체/전력 → AI 서비스 순환 상승 전망
- ☑ 반도체 이익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환율~임금)으로 확산 중

월배당

- ☑ 삼성전자·SK하이닉스 2027년 주주환원율 8.5%(자사주 4.7%+배당 3.8%) 추정 → 배당 관련 자산 매력 상승
  *2026년 주주환원율 5.3%
- ☑ 변동성 장세에서 기초자산 시장 흐름 참여 + 매월 프리미엄 수취 추구

원자재

- ☑ 금은 지정학 리스크(중동 전쟁) 대응 시 매크로 변동성 방어 수단으로 유효

초단기 채권

- ☑ 초단기 채권의 대기자금 활용, 채권혼합·TDF의 IRP 안정자산 30% 의무 대응

※ 자료: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 센터 ※ 기준일 : 2026.08.31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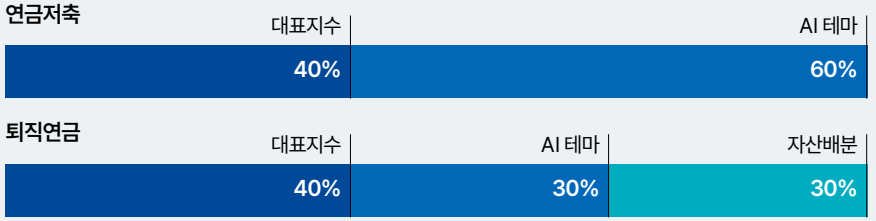
02 ETF로 연금 꾸준히 쌓는 방법 — 연금 적립기

연금술사의 한 줄
20대는 연금을 꺼내 쓸 때까지 남은 시간이 가장 긴 세대다.
대표지수를 중심축으로 두고, AI 테마 비중을 높여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

20대 연금 포트폴리오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	대상 ETF
대표지수	40%	40%	Kodex 미국S&P500 ETF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Kodex 200 ETF
AI 테마	60%	30%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 ETF Kodex 미국AI메모리TOP2플러스 ETF Kodex 미국AI광통신네트워크 ETF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Kodex 현대차로보틱스밸류체인TOP3플러스 ETF Kodex 전고체배터리ESS TOP2플러스 ETF
자산배분	0%	30%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 Kodex 코리아TDF2065액티브적격 ETF
합계	100%	100%	

※ 안내하는 투자 비중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IP
매월 연금저축 50만원,
IRP 25만원을 기억하자!

연간으로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채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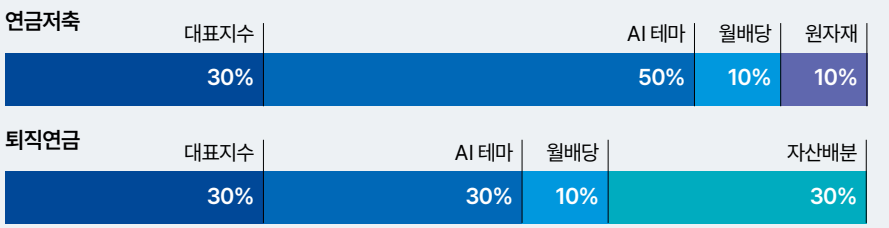
연금저축	IRP
50만원 × 12	25만원 × 12

연금술사의 한 줄
30~40대는 대표지수와 AI 테마로 성장을 이어가되,
월배당·자산배분·원자재처럼 흔들림을 줄여줄 다른 자산을 조금씩 더할 시기이다.

30~40대 연금 포트폴리오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	대상 ETF
대표지수	30%	30%	Kodex 미국S&P500 ETF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Kodex 200 ETF
AI 테마	50%	30%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 ETF Kodex 미국CPU반도체TOP10 ETF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Kodex AI전력핵심설비 ETF
월배당	10%	10%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ETF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
자산배분	-	30%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
원자재	10%	-	Kodex 금액티브 ETF
합계	100%	100%	

※ 안내하는 투자 비중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IP
매월 연금저축 50만원,
IRP 25만원을 기억하자!

연간으로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채울 수 있다.

연금저축	IRP
50만원 × 12	25만원 × 12

03 ETF로 안정적으로 꺼내 쓰는 방법 — 연금 인출기

연금술사의 한 줄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연금의 목표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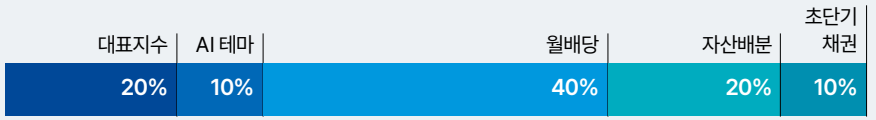


50대 이후 연금 포트폴리오

구분	연금 계좌 (연금저축/퇴직연금)	대상 ETF
대표지수	20%	Kodex 미국S&P500 ETF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Kodex 200 ETF
AI 테마	10%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 ETF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월배당	40%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자산배분	20%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
초단기 채권	10%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
합계	100%	

※ 안내하는 투자 비중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연금저축/퇴직연금)



TIP
연금 계좌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눠보자.

인출을 시작하면 추가 납입이 불가하다. 따라서 연금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좋다. 또한 월배당 ETF 비중을 높이면, 연금 수령하기 위해 ETF를 매도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6

연금술사가 고른 재료

Kodex ETF 22종

연금술사가 고른 시간과 꾸준함으로 모아가는 22가지 재료



평생 주목할 대표지수형부터,
투자 고수를 위한 심화 재료까지

01 한눈에 보는 Kodex ETF 22종



대표지수	Kodex 미국S&P500 ETF	379800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379810
	Kodex 200 ETF	069500
AI 테마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 ETF	0151S0
	Kodex 미국CPU반도체TOP10 ETF	0225V0
	Kodex 미국AI메모리TOP2플러스 ETF	0238F0
	Kodex 미국AI광통신네트워크 ETF	0173Y0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395160
	Kodex AI전력핵심설비 ETF	487240
	Kodex 현대차로보틱스밸류체인TOP3플러스 ETF	0204D0
	Kodex 전고체배터리ESS TOP2플러스 ETF	0209D0
월배당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441640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ETF	494300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489250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	0219E0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498400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498410
자산배분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	0177N0
	Kodex 코리아TDF2065액티브적격 ETF	0231Z0
초단기 채권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	0048J0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	488770
원자재	Kodex 금액티브 ETF	0064K0

※ 6장에서 안내하는 Kodex ETF 22종에 대한 설명은 2026.08.31 기준
※ 6자리 종목코드를 활용하면 원하는 ETF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다.

대표지수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미국S&P500 ETF 379800

- 미국 S&P500 :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미국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지수**
- 특정 섹터에 쏠려 있지 않고 **다양한 섹터에 잘 분산된 것이 특징이자 장점**
  * IT 37.9%, 금융 12.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9.5%, 헬스케어 9.3%, 경기소비재 9.1% 등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500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Nvidia	8.3%	6	Broadcom	2.7%
2	Apple	7.0%	7	Alphabet C	2.4%
3	Microsoft	5.6%	8	Meta Platforms	1.9%
4	Amazon	3.8%	9	Micron	1.6%
5	Alphabet A	3.0%	10	Tesla Motors	1.5%

합성총보수: 연 0.0738% (운용 0.0001%, AP 0.001%, 신탁 0.005%, 사무 0.0001%, 기타 0.0676%),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345% 발생 |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상장일**: 2021년 04월 09일 | **순자산 총액**: 10조 803억원 | **기초지수**: S&P 500 Index

대표지수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379810

- 미국 나스닥100 : 혁신을 주도(모바일→플랫폼 → AI)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 다수 포함**
- 100개 기업 & 테크놀로지 섹터 중심(약 60%)으로 구성
-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지수, **빅테크 비중 확대 전략에 주요 상품**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100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Nvidia	8.8%	6	AMD	3.4%
2	Apple	7.3%	7	Alphabet A	3.2%
3	Microsoft	6.0%	8	Alphabet C	2.9%
4	Micron	4.6%	9	Tesla Motors	2.8%
5	Amazon	4.4%	10	Broadcom	2.8%

합성총보수: 연 0.1003% (운용 0.0001%, AP 0.001%, 신탁 0.005%, 사무 0.0001%, 기타 0.0941%),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558% |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상장일**: 2021년 04월 09일 | **순자산 총액**: 9조 1,633억원 | **기초지수**: NASDAQ 100 Index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지수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200 ETF 069500

-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으로 구성
- 코스피 상승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
- 반도체, 자동차, 금융, 방산, 바이오, 원자력 등 주도 산업에 분산 투자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200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삼성전자	33.2%	6	KB금융	1.5%
2	SK하이닉스	26.0%	7	신한지주	1.2%
3	SK스퀘어	2.6%	8	두산에너빌리티	1.1%
4	삼성전기	2.2%	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
5	현대차	1.5%	10	삼성물산	1.0%

합성총보수: 연 0.1615% (운용 0.124%, AP 0.001%, 신탁 0.010%, 사무 0.015%, 기타 0.0115%),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283% 발생 |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상장일**: 2002년 10월 14일 | **순자산 총액**: 25조 333억원 | **기초지수**: 코스피 200 지수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AI 테마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 ETF 0151S0

- **AI 반도체 탑티어 3개**(Nvidia, Broadcom, Intel)에 **약 63%*** 집중 투자
  (GPU: Nvidia, ASIC: Broadcom, CPU: Intel)
- 더불어 AI 산업과 주가 움직임을 함께하는 핵심 기술 기업 7개 추가 선별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10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Nvidia	26.0%	6	TSMC	7.3%
2	Broadcom	20.5%	7	Cerebras Systems	5.5%
3	Intel	16.7%	8	Sandisk	4.0%
4	AMD	9.3%	9	ARM	1.7%
5	Micron	7.6%	10	Marvell Technology	1.4%

총보수: 연 0.49% (운용 0.45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상장일**: 2026년 01월 13일 | **순자산총액**: 1,965억원 | **기초지수**: Akros 미국 AI반도체 Top 3 플러스 지수

AI 테마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미국CPU반도체TOP10 ETF 0225V0

- AI Agent 시대의 새로운 병목, CPU 수요 급증에 대응 가능
- 범용 CPU(x86) : **Intel 및 AMD (소프트웨어 호환성 높은 구조) 각 25% 수준** 집중
- 새로운 AI CPU : ARM (전력 대비 성능비 높은 장점) 25% 수준 투자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10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ARM	25.8%	6	Navitas Semiconductor	2.4%
2	Intel	25.7%	7	ASE Technology	2.3%
3	AMD	24.7%	8	Cadence Design Systems	2.3%
4	Marvell Technology	8.2%	9	Amkor Technology	1.2%
5	Qualcomm	6.8%	10	Wolfspeed	0.6%

총보수: 연 0.55% (운용 0.51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상장일**: 2026년 08월 04일 | **순자산총액**: 670억원 | **기초지수**: Indxx US CPU Semiconductor TOP 10 Index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AI 테마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미국AI메모리TOP2플러스 ETF 0238F0

- '더 큰 메모리·스토리지' 없이는 확장 불가능한 AI 시대
- **Sandisk와 Micron에 약 50% 투자** → 고성능·고용량 SSD 수요 확대 수혜 기대
- **Western Digital과 Seagate에 약 30% 투자** → AI 데이터 폭증에 따른 HDD 출하량 확대 기대(과점 시장)

기초지수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10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Micron	25.6%	6	Silicon Motion Technology	4.5%
2	Sandisk	25.2%	7	NetApp	4.4%
3	Seagate	17.1%	8	Hewlett Packard	3.4%
4	Western Digital	13.3%	9	Dell Technologies	2.3%
5	Everpure	6.1%	10	Marvell Technology	0.8%

총보수: 연 0.55% (운용 0.51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상장일**: 2026년 09월 15일 | **기초지수**: Akros U.S. AI Memory TOP2 Plus 지수

AI 테마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미국AI광통신네트워크 ETF 0173Y0

- **AI 병목 해결의 축으로 광(光) 네트워킹 주목 : 구리선 대비 ①전송속도↑, ②대역폭↑,③지연시간↓ 등 가능**
  ① 광전환 및 모듈 : Coherent, Lumentum(레이저 생산)
  ② 광학 칩 설계·공정 : Marvell(광학 칩 설계), Tower Semiconductor(광학 칩 위탁 생산)
  ③ 네트워크 인프라 : Corning(광섬유) ④ 장거리 광전송장비: Ciena(광전송)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10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Lumentum	26.7%	6	Tower Semiconductor	4.8%
2	Ciena	20.5%	7	Nokia	4.7%
3	Coherent	19.4%	8	Applied Optoelectronics	4.4%
4	Marvell Technology	6.3%	9	Fabrinet	3.8%
5	Corning	5.9%	10	Macom Technology	3.5%

총보수: 연 0.55% (운용 0.529%, AP 0.001%, 신탁 0.010%, 사무 0.010%) |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상장일**: 2026년 03월 31일 | **순자산총액**: 3,782억원 | **기초지수**: Akros 미국 AI광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지수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AI 테마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395160

- **삼성전자·SK하이닉스 + 삼성전기/SK스퀘어** 집중 투자
- 국내 반도체 TOP 2(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업에 약 50% 투자
- SK스퀘어(SK하이닉스 지분 20% 보유), 삼성전기(AI 사이클 핵심 수혜 기대로 부상)도 투자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15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삼성전자	26.3%	6	이수페타시스	1.5%
2	SK하이닉스	23.9%	7	리노공업	0.8%
3	SK스퀘어	22.8%	8	HPSP	0.8%
4	삼성전기	19.2%	9	DB하이텍	0.7%
5	한미반도체	2.3%	10	피에스케이	0.6%

합성총보수: 연 0.5084%(운용 0.40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20%, 기타 0.0584%),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878% 발생 |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상장일**: 2021년 07월 30일 | **순자산 총액**: 4조 33억원 | **기초지수**: FnGuide AI반도체 TOP2+ 지수

AI 테마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AI전력핵심설비 ETF 487240

- AI 시대 전력난, **국내 핵심 변압기/케이블 기업에 주목**
- 국내 전력설비 TOP3(효성중공업, LS그룹, HD현대일렉트릭)에 약 80% 수준 집중 투자
- 글로벌 노후화된 전력망, AI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등으로 높은 성장률 기대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12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효성중공업	21.6%	6	산일전기	6.5%
2	LS ELECTRIC	20.8%	7	일진전기	4.2%
3	HD현대일렉트릭	17.6%	8	가온전선	2.8%
4	LS	12.8%	9	대원전선	1.8%
5	대한전선	8.2%	10	LS마린솔루션	1.3%

합성총보수: 연 0.4586% (운용 0.35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기타 0.0686%),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713% 발생 |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상장일**: 2024년 07월 09일 | **순자산 총액**: 3조 2,056억원 | **기초지수**: iSelect AI전력핵심설비 지수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AI 테마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현대차로보틱스밸류체인TOP3플러스 ETF 0204D0

- 글로벌 로보틱스 기업으로 진화한 **현대차그룹, 기아, 현대모비스에 75% 수준** 집중 투자
- 로봇 밸류체인 내재화+로봇 확장성*을 가진 포트폴리오 설계

  *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비상장 기업이 상장할 경우, 지수 내 편입 검토 예정. 상장 시점 및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10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현대모비스	27.5%	6	현대위아	3.5%
2	기아	26.2%	7	Nvidia	2.7%
3	현대차	22.7%	8	LG이노텍	1.6%
4	현대글로비스	9.0%	9	HL만도	1.6%
5	현대오토에버	3.8%	10	Alphabet A	1.4%

총보수: 연 0.50%(운용 0.46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상장일**: 2026년 06월 09일 | **순자산 총액**: 2,127억원 | **기초지수**: Akros 현대차로보틱스 밸류체인 TOP3 플러스 지수

AI 테마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전고체배터리ESS TOP2플러스 ETF 0209D0

- **K-배터리 TOP2(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에 50%** 투자
- AI 데이터센터 필수 인프라로 부상한 ESS(에너지 저장 장치)의 고성장 기대
- 가전, 웨어러블, 의료기기,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 ESS 등에 핵심인 전고체 배터리 상용 가시화 기대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10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삼성SDI	27.2%	6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5.7%
2	LG에너지솔루션	26.5%	7	대주전자재료	5.5%
3	이수스페셜티케미컬	8.3%	8	엘앤에프	5.5%
4	LS Electric	7.7%	9	서진시스템	3.5%
5	효성중공업	7.4%	10	SFA넥셀(구, 씨아이에스)	2.7%

총보수: 연 0.50% (운용 0.46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상장일**: 2026년 06월 23일 | **순자산 총액**: 1,217억원 | **기초지수**: Akros 한국 전고체 배터리 ESS TOP2 플러스 지수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월배당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441640

- 탄력적인 옵션 매도 전략과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로 **'자산 성장'과 '배당' 모두 추구**
- 미국 배당성장주 : 시대 변화를 반영한 배당성장 포트폴리오(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 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개별종목 옵션 매도 : 기계적인 옵션 매도는 No! 필요 시 선택적 옵션 매매

커버드콜 액티브 전략 (예시)

(2026.08.31)

주요 투자대상(기초자산)		콜옵션 매도
미국 대표 배당성장주 30개 내외 선별	+	개별 주식 콜옵션 매도
VOO S&P500, DIVO, Apple, Microsoft, Meta, Raytheon Technologies, VISA, American Express, J.P.Morgan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콜옵션 매도 진행** 시장 상승 = 옵션매도 ↓ 시장 하락 = 옵션매도 ↑

합성총보수: 연 0.2601% (운용 0.169%, AP 0.001%, 신탁 0.010%, 사무 0.010%, 기타 0.0701%), 직전 회계연도 기준 0.1774% 발생 |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상장일**: 2022년 09월 27일 | **순자산 총액**: 1조 6,914억원 | **기초지수**: S&P 500 Index | 월배당(월중)

월배당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ETF 494300

- **잔존만기 1일 & 외가격(OTM, Out of the Money) 포지션의 나스닥 100 콜옵션 매도**
- 외가격까지 시장 흐름 참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옵션 프리미엄까지 수취 추구
- 미국 뉴욕현지법인을 통해 시차 없이 당일 콜옵션 매매 결정으로 정확성 제고 기대

커버드콜 전략 (예시)

(2026.08.31)

주요 투자대상		콜옵션 매도(100%)
미국 나스닥 100	+	나스닥100 콜옵션
미국 나스닥100, NVIDIA, Microsoft, Meta, Apple, amazon, NETFLIX, BROADCOM		**외가격(OTM) 상태의 콜옵션 매도를 통해 시장 흐름 참여 추구(환율변동 제외)**

합성총보수: 연 0.352%(운용 0.21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기타 0.102%),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149% 발생 |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상장일**: 2024년 10월 22일 | **순자산 총액**: 1조 21억원 | **비교지수**: NASDAQ-100 Daily Covered Call 101 Index | 월배당(월말)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이 다른 커버드콜 전략에 따른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월분배 상품으로 커버드콜(콜옵션 매도 프리미엄)과 보유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분배금이 지급되며, 월별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배당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489250

- 10년 연속 배당하고 배당을 늘려가는 **미국의 우량 기업 100개 종목에 투자**
- 변동성 장세에서도 배당수익으로 성과를 방어하는 등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
- 섹터 비중 제한(최대 25%)으로 특정 섹터 쏠림을 방지, 보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100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Merck	4.8%	6	Chevron	3.9%
2	Amgen	4.8%	7	Home Depot	3.9%
3	Abbott Laboratories	4.8%	8	Unitedhealth Group	3.9%
4	Coca-Cola	4.2%	9	Conocophillips	3.9%
5	Verizon Communications	3.9%	10	Procter & Gamble	3.8%

합성총보수: 연 0.0887% (운용 0.0029%, AP 0.001%, 신탁 0.003%, 사무 0.003%, 기타 0.0788%),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863% 발생 |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상장일**: 2024년 08월 13일 | **순자산 총액**: 6,096억원 | **기초지수**: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 | 월배당(월중)

월배당

연금저축 |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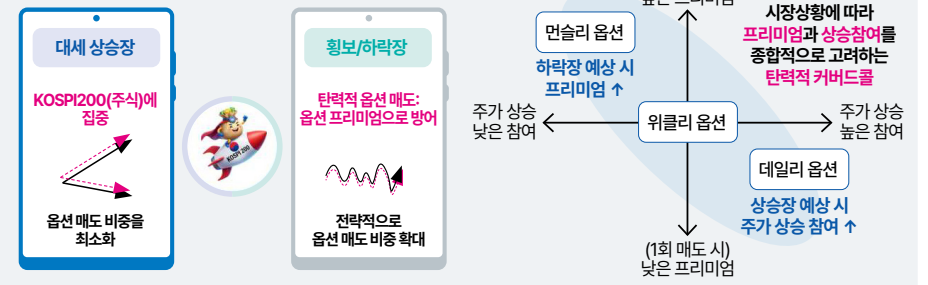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 0219E0

- **국내 주도주+주주환원주(약 100개)에 집중하며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 추구**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와 함께 활용 시 월 2회 현금흐름 추구 가능
- 탄력적 커버드콜 전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절세효과(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비과세)까지 기대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과세 이연 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가 상승 시 수익 일부를 옵션 프리미엄으로 대체하는 전략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 상승 시 수익 상방이 제한되고, 기초자산 하락 시 손실하방 제한이 없어 원금 손실 확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08.31)

커버드콜 액티브 전략



총보수: 연 0.50% (운용 0.46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상장일**: 2026년 07월 14일 | **순자산 총액**: 8,350억원 | 월배당(월말)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이 다른 커버드콜 전략에 따른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월분배 상품으로 커버드콜(콜옵션 매도 프리미엄)과 보유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분배금이 지급되며, 월별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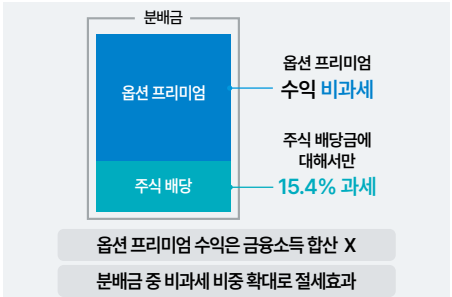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498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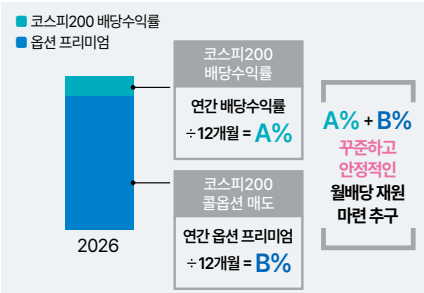
- **국내 200여 종목 고른 분산 투자 + 코스피200 지수 위클리 콜옵션**
- 타겟 커버드콜 전략으로 목표한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여 분배 재원으로 활용 추구
-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비과세로 절세효과 극대화 기대 : 금융소득종합과세&건강보험료 부담 Down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과세 이연 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건강보험료 부담 Down!



매월 꾸준한 배당마련 추구 (예시)



합성총보수: 연 0.4228%(운용 0.35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기타 0.0328%),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1015% 발생 |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상장일** : 2024년 12월 03일 | **순자산 총액** : 5조 7,374억원 | 월배당(월중)

월배당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498410

- **고배당주에 70% 수준 참여 + 코스피200 지수 위클리 옵션**
- 타겟 커버드콜 전략으로 목표한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여 분배 재원으로 활용 추구
-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비과세로 절세효과 극대화 기대 : 금융소득종합과세&건강보험료 부담 Down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과세 이연 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상위 10개 기업 (전체 투자 기업 수 : 10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KB금융	22.5%	6	DB손해보험	7.6%
2	하나금융지주	16.7%	7	NH투자증권	5.4%
3	우리금융지주	14.2%	8	한국금융지주	5.2%
4	삼성화재	11.3%	9	삼성증권	3.5%
5	기업은행	10.5%	10	키움증권	3.1%

합성총보수: 연 0.4312%(운용 0.35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기타 0.0412%),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149% 발생 |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상장일**: 2024년 12월 17일 | **순자산 총액**: 8,644억원 | 월배당(월말)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이 다른 커버드콜 전략에 따른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월분배 상품으로 커버드콜(콜옵션 매도 프리미엄)과 보유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분배금이 지급되며, 월별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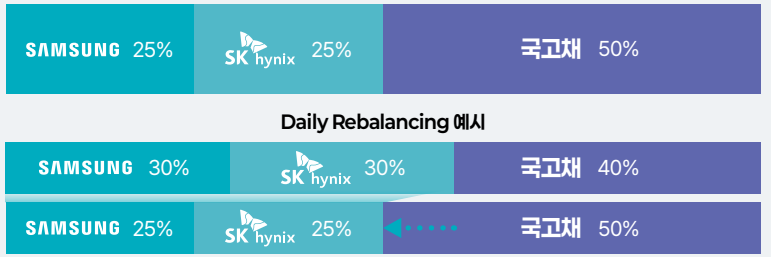
연금저축 | 퇴직연금100% 투자가능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 0177N0

- **삼성전자 25%, SK하이닉스 25%, 국내 채권 50% 투자 비중**을 매일 맞추기 위한 Daily Rebalancing 실시
-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 + 만기 5년 이내의 국고채에 투자 : 자산배분 효과 및 안정적 금리 수익 추구
-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

분산 투자 전략 = 삼성전자 25 : SK하이닉스 25 : 국고채 50

(2026.08.31)



총보수: 연 0.07%(운용 0.059%, AP 0.001%, 신탁 0.005%, 사무 0.005%) | **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 **상장일**: 2026년 04월 07일 | **순자산 총액**: 1조 5,252억원 | **기초지수** : Wise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혼합 지수 | 월배당(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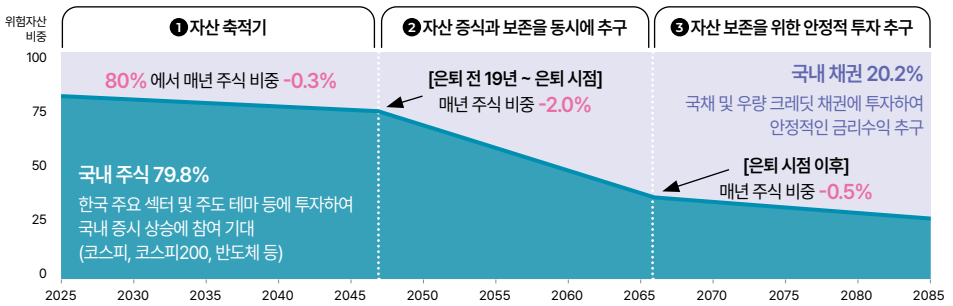
자산배분

연금저축 | 퇴직연금100% 투자가능

Kodex 코리아TDF2065액티브적격 ETF 0231Z0

- **국내 주식 +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코리아 TDF ETF**
- 적격 TDF로 퇴직연금 100% 투자 가능 : 차별화된 코리아 TDF 글라이드패스 독자 설계
- 한국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테마 등에 액티브 투자

(2026.08.31)



* TDF(Target Date Fund) :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을 알아서 운용해 주는 펀드

총보수: 연 0.27%(운용 0.23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상장일**: 2026년 08월 25일 | **순자산 총액**: 203억원 | **비교지수**: FnGuide 코리아 TDF 2065 지수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초단기 채권

연금저축 | 퇴직연금100% 투자가능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 0048J0

- 안정자산인 미국 초단기채권 등 단기자금 시장에 투자
- 미국 기준금리 대비 높은 금리 + 듀레이션 초단기로 유지하면서 안정 추구
- **1주 보유 시 약 $10 투자 효과 : 환전 비용 無, 간편하게 달러 투자**

환전 없이 손쉽게 미국 머니마켓 시장에 달러로 투자

(2026.08.31)



합성총보수: 연 0.0818%(운용 0.034%, AP 0.001%, 신탁 0.010%, 사무 0.005%, 기타 0.0318%),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14% 발생 | **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 **상장일** : 2025년 05월 13일 | **순자산 총액** : 8,121억원 | **비교지수** : KAP 미국 머니마켓 지수 | 월배당(월말)

초단기 채권

연금저축 | 퇴직연금100% 투자가능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 488770

- 가입 금액 제한 없고, 기간 조건 없는 **여유 자금 운용을 위한 현금관리 솔루션 추구**
- 초단기 ETF로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을 두루 추구하는 '투자 대기성 자금 보관처'로 매력 부각 기대
- 짧은 듀레이션 상품으로 중장기 채권 대비, 금리 변동에 의한 자본손실 축소 추구

초단기자금 관리에 용이한 현금관리 솔루션

(2026.08.31)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고금리 & 우량 채권/기업어음 등에 선별 투자	유동성이 높은 자산 편입하여 우수한 환금성	목표 듀레이션 0.1~0.3년 내외 초단기 금융상품에 투자
MMF 금리를 상회하는 수익 달성 추구	환매제한 기간 및 중도환매 수수료 없음	

합성총보수: 연 0.063%(운용 0.039%, AP 0.001%, 신탁 0.005%, 사무 0.005%, 기타 0.013%),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13% 발생 | **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 **상장일**: 2024년 08월 06일 | **순자산 총액**: 8조 2,436억원 | **비교지수**: KAP MMF 지수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자재

연금저축 | 퇴직연금

Kodex 금액티브 ETF 0064K0

- **달러와 미국 국채가 불안할 때 상승하는 원자재, 골드(금)**
- 골드, 한정된 매장량 & 끊임없는 수요 = 안정자산의 주요 요소
- 김치프리미엄 걱정 없이 **국제 금 시세**(런던 금 시장협회, LBMA)를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현황 (전체 투자 대상 수 : 8개)

(2026.08.31)

No.	종목명	비중	No.	종목명	비중
1	SPDR Gold MiniShares Trust ETF	26.2%	5	Abrdn Physical Gold Shares ETF	13.2%
2	iShares Gold Trust Micro ETF	25.7%	6	GraniteShares Gold Trust ETF	5.8%
3	금 99.99_1Kg	14.8%	7	iShares Gold Trust ETF	0.8%
4	Goldman Sachs Physical Gold ETF	13.3%	8	SPDR Gold Shares ETF	0.2%

합성총보수: 연 0.508%(운용 0.260%, AP 0.010%, 신탁 0.020%, 사무 0.010%, 기타 0.068% 및 피투자펀드 보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3397% 발생 |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상장일**: 2025년 06월 17일 | **순자산 총액**: 1,627억원 | **비교지수**: Bloomberg Gold Spot NY 4pm USD Index

※ 자료 :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보수 및 합성총보수는 기준 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ETF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TF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

ETF 관련 채널 소개

ETF 투자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소개해 드립니다.

FUN ETF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스캔하기

국내, 해외 상장 ETF에 대한
핵심 정보뿐만 아니라
각 ETF별 비교까지 한 번에 가능

쉬운 투자를 위한 출발지

강남역 8번출구



QR코드 스캔하기

돈이 모이는 1%의 시작,
쉬운 투자를 위한 출발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연금, Kodex하다

세금은, 계좌 하나로 갈린다.

"
같은 5,000만원의 과세대상금액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투자했느냐에 따라 매도 시점에
세금 부담이 약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

『어차피 낼 세금, 계좌만 바꿔도 달라진다』 중에서

이런 분들께 가이드북을 추천드려요.

- 투자가 처음인 투자자
- 연금 계좌만 만들고 방치 중인 투자자
-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투자자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심사필 제2026-1888호(2026.09.30~2027.09.29)

삼성자산운용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CS센터 : 1533-0300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00~오후 5:00)